

## “한국과 해결책 마련”…관세 발표 하루만에 ‘협상모드’

트럼프 “15→25% 인상” 철회 여지…조정 가능성 높아

김정관 산업통상장관 등 조만간 방미…협의 결과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자신이 전날 밝힌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이오와 일정을 위해 출발하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한국 관세를 올릴 것인가?’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는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관세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무역 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

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5조원)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언제부터 관세

인상이 발효되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이후 행정명령 등 추가 조치도 나오지 않아 한국과의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 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지난달 초 미국 정부는 11월 1일 자로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15%로 소

급 인하였다.

그러나 대미투자특별법은 아직 국회에 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 정부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갑작스럽게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자,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캐나다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으로 와서 하워드 러트니 미 상무장관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여권에서는 내달 법안 심의 절차에 착수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양국 간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특별법 처리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관세 인상 방침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기자들 질문 받는 트럼프 대통령.

## 4년간 전쟁에…우크라·러시아군 사상자 200만명 육박

사상자 증가에 러시아군 진격 느려져…경제적 부담도 작용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돼 만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국 군 사상자가 200만명에 육박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과 영국 정부 추정치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은 집계를 내놨다.

현재까지 러시아군 사상자는 총 12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32만5000명가량으로 파악된다.

CSIS는 작년 한 해 동안 러시아군 사상자가 약 41만5000명, 월평균 3만5000명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군의 피해 규모는 60만명 수준으로 파악되며, 전사자는 10만~14만명으로 추정된다.

CSIS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의 총 사상자가 최대 180만명에 달할 수 있으며 올해 봄에는 200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전쟁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낸 강대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상자 규모가 늘면서 러시아군

의 전격 속도도 현저히 느려지고 있다고 CSIS는 짚었다. 러시아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수감자를 전투에 투입하는 한편 북한에서도 파병을 받아 우크라이나보다 우세하게 병력 규모를 유지해왔지만, 매달 수만명에 달하는 전력 손실에 전격 속도를 높출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NYT는 러시아군이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에 약 15~70미터 정도밖에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CSIS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4년 1월 이후로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5%만 추가로 점령했다.

CSIS의 국방 전문가 세스 존스는 이번 전쟁이 러시아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